

연애인가 국정운영인가



김민 소장
당당평평

세상만사가 현실을 직시해 이성과 냉철함으로 해결할 일이 있고 반면에 감성과 철학이 동반되어야 하는 일이 있다. 인간사의 총체적 집합체인 '정치'야 말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단·중·장기적으로 적절히 가시화된 실적이 있어야만 한다. 지난 정부의 역대급 스캔들로 인해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 라는 슬로건으로 탄생했다. 대통령의 철학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감성이 이성과 현실을 앞서는 국정운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 정권이 왜 그토록 비현실적 국가운영을 하는지 팩트를 기반으로 얘기해보자.

첫째,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불법 반입됐다는 관세청 수사결과가 발표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 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석철 3만5000t을 국내로 반입했다. 이들은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북한산 석탄을 다른 배로 환적해 원산지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북한산 석탄의 불법반입을 과연 정부가 모르고 있었을까. 몰랐다고 해도 큰 일이고 말면서 묵인했다면 더 큰 일이다. 물론 날이 더워서 관세청이 소실을 쓴 것일 수도 있다.

둘째, 사상 최악의 폭염사태로 학생들

의 방학까지 연장이 되는 마당에 전기료 누진세 문제를 가지고 대체 언제까지 정부는 대책만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여름을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쪽방촌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서민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것인가.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관계자들은 이더위에 노란 점퍼 차림으로 빈곤층 방문만 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쇼맨십은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궁금하다. 긴급조치로 일시적으로라도 전기료 누진세를 낮추거나 없애주면 되는 것을 가지고 대체 국민들을 어디까지 고통 속에 몰아넣어야 하는 것인가.

셋째, '드루킹' 스캔들로 특검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특검은 자신이 먼저 요구했다고 당당하다가 이제 말을 바꾸고 있다. 스캔들이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 결과 자체가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 무조건 아니라면 우기면 사실이 거짓이 되는 것인가. 이미 언론에 발표된 여러 가지 정황상 그 진실은 김경수 지사와 정부·여당과 국민들의 느낌은 대동소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몇 가지 이슈로 인해 문제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처음으로 50%대까지 하락했다. 시도 때도 없이 국민들과 연애하는 듯 한 낮 뜨거운 행보는 즐기차게 잘해오면서 정작 대통령과 정부로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해주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최저임금제 같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정책을 만들어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고, 지난 6·13지방선거 무렵에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

상회담 같은 내용도 결론도 없는 감성놀이나 해대면서 무엇으로 국정운영을 한다는 것인지 필자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사람이 먼저고 나라를 나라답게'란 말인가.

오랜 세월 기득권에 속했던 정부의 집권은 지난 정권처럼 부패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집권을 해본 적도 없고 기득권에 대해 국민만 선동한 진보정권이 집권을 하면 국가자체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된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운영방식이 없고 비현실적 의욕만 앞서 집권 내 내 허니문기간만 보내다 마치니 무엇이 제대로 되겠나. 그 기간 동안 국민들의 삶은 또 얼마나 황폐해질 것이며, 마치 대통령과 연애감정으로 시작했던 그 기대감은 견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뀔 것이다. 연애와 비슷하지 않다. 처음에는 상대를 향해 죽고 못 사는 감정에 빠져 이성을 상실했다가 시간이 지나 정신이 돌아오고 헤어질 때가 되면 상대만 아니면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그럴싸하게 포장된 밑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지키지도 못 할 약속을 무책임하게 아무말대잔치로 내뱉는 연애 관계처럼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 연애는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정부와 국민의 관계가 그렇다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그래 백번을 양보해 지금까지는 위망입이었다고 이해하자. 그럼 지금부터는 감성놀이 그만하고 진짜 정치 즉 국민이 납득할만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데일리포터 정치연구소장



KDB나눔재단, 사회적기업 10곳에 지원금 전달

KDB나눔재단은 지난 10일 한국YMCA연합회에서 'KDB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전달식'을 열고 사회적기업 10곳에 총 2억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한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해 시설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경제활성화지원센터 김완배 이사장(뒷쪽 왼쪽 세번째부터)과 KDB나눔재단 강창호 사무국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송남철 본부장이 지난 10일 한국 YMCA연합회에서 'KDB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전달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DB나눔재단



NH농협은행, 폭염기간 말벗서비스 확대

NH농협은행 주재승 부행장(왼쪽에서 일곱번째)을 비롯한 디지털금융부서 직원과 말벗서비스 상담사들은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에 위치한 부천시독거노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어르신 돌봄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상담사들이 말벗서비스 대상 어르신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전화상으로 다하지 못한 안부를 나눔과 동시에 살인적인 폭염에 필요한 휴대용 선풍기와 사은품 등을 지원하고, 삼계탕을 점심식사로 대접했다. /NH농협은행



쉐보레, 고객가족과 '스타나이트데이' 개최

쉐보레가 지난 11일 경기도 양평군 중미산에서 홍보대사 활동 고객을 대상으로 '스타나이트데이(Star Night Day)' 행사를 개최하고 중미산 일대에서 제품 시승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홈페이지 응모를 통해 선발된 200명의 쉐보레 앰버서더는 7월부터 두 달간 이쿠닉스와 볼트EV, 카마로, 스파크, 말리부, 트랙스 등 쉐보레 대표 제품 시승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 행사에 참여하며 고객 홍보 대사로 활동 중이다. /쉐보레



삼표그룹, 보령시에 10년째 '우수인재 장학금'

삼표그룹은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장학재단인 '정인욱 학술장학재단'을 통해 충남 보령지역의 장학생 10여명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삼표가 보령지역에 장학금을 전달한 것은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삼표는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우수 중·고·대학생을 선발, 2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삼표그룹 및 보령시 관계자들이 장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표그룹

부동산 '파리대책'?



기지수첩
채신화
(부동산부)

'~했다더라', '흔히카더라'통신(소문으로 전해져 진위 파악이 어려운 사실)은 부동산에서 활발하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프리미엄이 붙어서 1억원 주고 팔았다더라', '다운 계약서 작성하고 세금을 받아야 될 뻔했다더라' 등. 한국에서 부동산 만큼 돈 벌기 쉬운 투자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8·2대책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역대 최고강도의 부동산 규제 조항이지만 시장에선 먹히지 않았다.

8·2대책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투기와 열지구,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등 투기 세력을 겨냥했다. 그러자 집주인들이 물건을 회수하며 서울에선 매물 폭귀 현상이

나타났고, 지방에선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났다. 결국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월간 6.60% 올랐다. 8·2 대책 이전 1년 상승률(4.74%)보다 높다. 한국감정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억8282만원에서 올해 7월 6억9593만원으로 19.4% (1억1311만원)나 뛰었다.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7억원은 있어야 하는 셈이다.

신한은행의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보면 학자금 대출 등을 이유로 빚을 떠안고 출발한 경력 3년 이하 사회 초년생의 47%가 평균 2959만원 상당의 대출을 갖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의 평(3.3㎡)당 아파트 매매가는 2783만 2200원. 빚을 떠안고 출발하는 이들은 남들보다 한 평 더 작은 곳에서, 더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보면 서울 일부 지역에선 하루에도 수 천만원씩 호가가 된다. 그동안 취재했던 마포, 용산, 여의도, 옥수 등이 그랬다. 중개업자들은 '다운 계약서'를 권유하며 불법으로 세금 줄이는 방법을 알려줬다. 주위에서 부동산으로 돈깨나 벌었다는 사람들은 '불법 전대'를 일삼았다.

결국 카더라 통신에 등장하지 않는 이들은 언제나 서민, 실수요자다. 이들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눈을 돌리거나,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해 방을 뺐다. 이에 정부는 또다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현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던 노무현 정권을 보면 초창기에 집값이 뛰었다가 대책의 강도를 높이자 부동산 과열이 가라앉기도 했다. '8·2 대책으로 파리(실수요자·서민) 목숨만 위태로워졌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사라질 만한 제대로 된 대책을 기대해 본다.

/csh9101@metroseoul.co.kr

인사

- ◆행정안전부 ◇ 실장급 전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박재민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정현민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상길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한창성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 김승수 ◇ 국장급 전보 △대변인 변성완 △인사기획관 장수완 △조직정책관 최용범 △공공서비스정책관 조소연 △지방행정정책관 최훈 △지방재정정책관 강성조 △지방세정책관 이용철 △지역경제지원관 최병만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김광용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임상규 ◇ 과장급 전보 △지방세입정보과장 황순조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과장급 전보 △ 기획총괄정책관실 정책관리과장 이동훈 △사회

복지정책관실 보건정책과장 서영석

부음

- ▲ 조병학씨 별세, 조성희·성현·유현(충북도청)·경희(서울 성수고 교사)씨 부친상, 민해정(호암방재 대표)씨 시부상, 김주학(새생명전원교회 목사)·김창영(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세이프타임즈 발행인)·연민식(서문제과)씨 장인상 = 12일 오전 11시 47분, 충북 청주의료원 1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30분 ☎ 043-279-0144
- ▲ 현은숙씨 별세, 박상돈(중부일보 파주담당 부장)씨 모친상 = 12일 오전 0시 20분,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4일 오전 11시 ☎ 031-940-9177
- ▲ 김갑득씨 별세, 김종열(전 관세청 차장·한국세

무사회 상임고문)씨 모친상 = 11일, 경남 창원시 삼성창원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14일 ☎ 055-233-513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4018호 서울 가50111
일간 메트로경제	2017년3월09일 제00112호



아디다스, 'MMCA 무브 X 아디다스' 성료

아디다스와 국립현대미술관이 함께한 관객참여형 이벤트 'MMCA 무브 X 아디다스'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12일 아디다스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서울 중로구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MMCA 무브 X 아디다스'에는 관객 8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이 아디다스 MMCA MOVE 발레 동작을 배우고 있는 모습.. /아디다스